고래가 춤추는 다른 이유

(눅2:10-14)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래가 춤추는 다른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고래가 춤추는 다른 이유!
아마 이 책의 제목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웨스킹슨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중역이 플로리다로 출장을 갔다가, 시간이 남는 짬을 이용해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씨월드 해양관에 관람을 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3톤 그러니까 3000Kg이 넘는 범고래가 조련사의 말을 따라서 그 육중한 몸으로 수면위로 뛰어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참으로 기기묘묘한 동작들을 해 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나 인상 깊어서, 조련사에게 어떻게 3000kg가 넘는 저 큰 범고래를 그렇게 말 한마디로 온갖 동작을 다 할 수 있게 조련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범고래의 긍정적인 동작에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범고래가 해 냈을 때에, 범고래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칭찬을

극대화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을 일단 받게 되면(범고래가),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동작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칭찬을 통해서 잘해 나갈 수 있다, 인간관계가 잘되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케케묵은 그 단어가 참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책이지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와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칭찬을 생활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칭찬 받는 고래가 춤춘다는 사실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진짜 행복은 더군다나 신앙인에 있어서, 기독교 교인에게 있어서 진짜 구원 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칭찬하는 고래가 춤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 거기서 바로 구원의 행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칭찬 받은 고래가 춤추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춤은 칭찬하는 고래가 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제 읽고서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13절과14절을 보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기린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칭찬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훌륭함을 칭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찬송한다는 말을 우리가 접하면 흔히,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의 천국에서의 사명과 의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주석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의 의무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천사들의 찬송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신성 모독이고 일종의 범죄같이 느껴집니다.
천국이 무슨 이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독재자입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송합니다, 주민들이.
의무입니다, 강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을 찬양해야 되고 김일성을 찬양했어야 됐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까?
찬송처럼 자발성과 기쁨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동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발성과 기쁨이 내용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계기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는 그 찬송을 의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찬송이 되려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때에 이건 자발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나오는 찬송이라야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재자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러나오는 찬송이라 그러면, 여기에 깊은 비밀이 하나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
천사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에서 상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상태로 늘 진행이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좋고 훌륭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부자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천사들은

누리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학자도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천국에서 늘~상 일상적인 것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 천사들이고, 어떤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인도 누릴 수 없는 인기를, 인기의 기쁨을 그 천국에서 하나도 원하지 않을 만큼 충족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곳,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천국에서 상주하는 천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내밀면 그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우러나오는 기쁨에서 칭찬을 하고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기껏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본 천국을 묘사한다는 것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 안에서, 금과 유리와 보석 따위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국에 상주하는 천사들이 우러나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훌륭한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천사들이, 우러나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고 얼마나 훌륭하면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러나서 칭찬하며 춤을 추는 것입니까?
여기서 천사들의 찬송이 그냥 뻣뻣하게 선 몸으로, 조금의 율동도 없이 기쁨이 충만한 찬송인데, 아무 동작도 없이 소리만 나온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무슨 TV 옆에 세워져 있는 스피커입니까, 천사들이?
당연히 이 천사들의 찬송소리는 기쁨과 희열에 못 견디는 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면 노래와 함께 몸이 움직여지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며 추는 춤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칭찬 받아서 기쁜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훌륭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종을 칭찬하려고 춤추는 이 춤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의 원형이 있는 겁니다.
3500kg 되는 어떤 범고래가 있다 합시다.
이 범고래가 하나님을 봤다 하면 이 범고래는 춤을 추지 않고는 못 견뎠을 것이에요.
범고래도 눈이 있기에, 그 눈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경우에 춤추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련사에 의해서 칭찬 받아 춤추는 고래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 춤추는 고래와 어느 고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이 갑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조련사의 칭찬을 받고 춤추는 그런 고래, 그 고래의 춤.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천사들조차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찬송하며 춤출 수밖에, 칭찬하려고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고래가 볼 때에, 100%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칭찬하기 위하여 이 고래도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래를 춤추게 하십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십니다.
왜? 칭찬하고 싶어 몸부림치도록 고래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알려 와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입맛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 하면, 천사들이 볼 때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올 때에 가장 적합한 곳이 말구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천사들의 입맛이 그런 거예요, 천사들의 기호가.
왕궁? 그거 별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볼 때에.
고관대작의 안방?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인간의 탐욕이 찐득찐득하게 묻어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말구유가 제일 낫다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자기들조차도 기뻐서 칭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하나님을, 천국에 상주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볼 때 하루 종일 24시간, 천국에서는 하루라는 게 없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기쁨에 겨워서 춤추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주시겠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러 온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이 왜 영광입니까?

운동회 때 일등한 자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할 때에 그 배우에게 조명이 비춰지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 배우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좋고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2등 3등 4등으로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운동회 때에 일등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일등으로 자리 잡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에게만 조명이 비춰서 깜깜한 극장 안에 배우만 보이듯이, 이 세상의 좋다고 여겨지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훌륭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좋음만이 내 마음에 일등으로 느껴지고 오직 그것만이 보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나는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춤추며 미쳐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보는 내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돈,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성공,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인기문제,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가족문제, 그 동안 좋던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자꾸 들어와 끼어들어 가지고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보는 걸 방해하느냐?
다~ 배설물로 마음에서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고래도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하여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훌륭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 데오빌로가 되게 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사이의 평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데오빌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얘기에요.
복음을 받아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왜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까?
반대로, 전쟁이 사람들 사이에 왜 일어납니까?
나도 돈을 좋아하고 이웃집 박씨 아저씨도 돈을 좋아하는데, 똑같이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게와 가게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대통령 자리를 좋아하는데 대통령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일본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북과 싸우는 이유가.
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경쟁입니다.
이게 전쟁의 이유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천사들조차도 우러나서 하나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고래조차도 봤다면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하여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싶은 게 없는 자에게, 무슨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이 있고 전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평화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왕 앞에서도 '아그립바 왕이여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바로 평화의 근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데오빌로가 된 상태에서 칭찬 받는 나 자신을, 칭찬 받고 싶은 나를 잊어버린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찬송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왕이 갖고 있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다 말구유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말구유에 뉘시면서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말구유 아래로 주가가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자꾸 낮은 곳, 비천한 곳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곳으로 고른 구유, 그 구유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그 동안 좋다고 여겼던 모든 가치들은, 구유 아래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최후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최고니까, 그 최고이신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 그곳보다 다 낮은 곳일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서 데오빌로가 돼서 하나님께 취해 있을 때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평화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서는 갖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천사들을 감격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훌륭하심.
고래도 칭찬하고 싶어 춤추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동안 내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
죄가 뭡니까?
꼭~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고 이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추구했던 그 마음, 그걸 소원했던 마음, 그걸 갖고 있었다고 기뻐했던 그 마음, 똥 품고 좋아한 거라는 얘기에요,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
그런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고 다 씻김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주님 따라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소원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그거 하나를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을 데오빌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해 주시고, 고래조차 춤출 수밖에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구원 받은 자, 그 하나님의 멋짐을 찬송하는 감격의 사

람들로 살아가게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과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칭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춤추며 칭찬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십자가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칭찬하는 춤을 출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 받은 고래가 춤추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행복의 춤, 기쁨의 춤,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 추는 그 춤을, 우리가 하루 종일 추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